

## 2015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를 마치며



“감사와 배움으로 가득했던 한 해, 그리고 미래를 위한 더 큰 도약”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로 일을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간 학회 일을 진행하며 저와 함께 한 운영진의 노고와 열성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회 회원들의 격려와 협조, 따뜻한 참여는 운영진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전무이사로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김정안 회장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 김정안 회장님의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에 올해 연구년이라 전무이사 수행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한 마디(거짓말^^)에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그 선택은 매우 잘한 일이었습니다. 전무이사로서 학회에 대해 좀 더 자세

히 알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로부터 학회 운영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 특히 젊은 회원들을 새로이 알게 되어 교류하게 된 것은 제게 더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제 학회 회원과 전임 운영진들의 오랫동안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학회로서 자리매김하여 모든 학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학회에서의 활동은 단순 ‘봉사’의 차원을 뛰어 넘은 너무나 큰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좋은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김정안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고분자학회는 춘추계 학술대회, 고분자 신기술강좌, 고분자아카데미, 기기분석, 고분자포럼, 등 6개 연례행사를 차질없이 치뤘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고분자 아카데미는 메르스라는 대형 악재 속에 행사 진행과 취소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만 운영진의 일사불란한 준비 끝에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등록한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에 새로이 장소를 제공해준 소속 대학 운영이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의 근간은 학술활동에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학술 발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국현 위원장님과 이종휘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학술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한편, 학술위원회의 의견이 최대 반영 될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양질의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대만 등과의 국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Leibler, Pine, Caruso 교수 등 세계적인 권위자를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고분자학회의 위상을 높이며 국제적 학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폴리머〉와 〈Macromolecular Research〉 두 학회지를 발간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원종찬, 최동훈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고분자과학과 기술〉지의 발간에 있어서 편집장인 저 대신 실제적으로 편집장 일을 해주신 정연식, 김봉수 부위원장께도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편집위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두 학회지와 기술지는 조만간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합니다.

사업들을 되짚어볼수록 인사드릴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2015년도 학회 운영진 및 각 분과와 주요 인사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7분의 운영이사들과 이기욱 실장을 중심으로 한 상주 직원 네 분은 대전, 대구 학회장, 총회장, 고분자 포럼, 아카데미, 기기분석 등 각종 수많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맘을 흘리는 등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헌신을 다하는 이 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이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추억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학회 운영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학회발전 위원회, 분자전자 부문, 의료용 고분자 부문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부장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한분 한분 거명을 하며 감사를 드리고 싶으나 지면이 부족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문위원님들과 역대 전무이사님들의 협조와 고견은 고분자학회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동준 전임 전무이사께는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임자로서 학회의 여러 디테일 한 상황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초반에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매년 고분자기기분석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한국화학연구원을 대표하여 이규호 원장님과 최길영 전임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분자포럼을 위해 부여에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롯데케미칼 허수영 대표이사님, 이동우 상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밖에 학회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업체 및 연구소 회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학회 운영 중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고 또한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드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점이나 서운한 점은 한해를 떠나 보내며 함께 날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밀어주고 당겨주는 선후배, 동료 간의 아름다운 협력관계와 운영진들의 열정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공존하는 한국고분자학회는 영원한 성장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2016년은 학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다가오는 40년을 바라보며 더욱 도약하는 한국고분자학회로 자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과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 김택준